

연중 제 28 주일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
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마태 22, 14).

기도서 454면 (A해)
제1독서 : 이 사 25, 6-10a
제2독서 : 필 립 4, 12-14, 19-20
복 음 : 마 태 22, 1-14

□ 감 론



잔치의 예복

나 궁 렬 신부

하느님의 잔치 초청은 혼인잔치 같은 기쁨의 초대이다.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한다. 예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처지도 이해할만 하다. 발으로 일 나가고 상점에 나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다 참다운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염려가 큰 것이다.

하느님은 「살진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 고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이사 6장) 잔치를 준비하신다. 그분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를 발라주시니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시며 내 피로움과 슬픔, 억울함, 고통 등을 위로해 주신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의 천상잔치에 몸소 미친한 인간들을 초대하여 베푸신다. 오늘 복음의 혼인잔치는 바로 성체성사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미사때 적은 분량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뿐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피이다.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칩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천상잔치의 기쁨을 함께 하는 행복 한 일치를 이루도록 하셨다. 그분이 베푸는 잔치에는 초창대상의 제한이 없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 리지 않고 모두 잔치에 베풀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과 잔치에 함께 하기를 즐 기셨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쫓겨났다. 예복이 문제가 되었는데 도 대체 그 예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혼인잔치의 비 유를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였다. 「기뻐 하고 즐거워 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양의 혼 인 날이 되었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하느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말했읍니다(묵시 19, 7~9). 미사 때 영성체 직전 사제가 신자들을 향하여 “보라, 천주의 어 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고 외치는 말은 바로 이 대목이다. 미사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올바른 행위의 예복을 갖추어 입도록 노력하자.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참회예절에 정성을 쏟는다면 훌륭한 예복의 증표가 될 것이다. (숲정이본당 주일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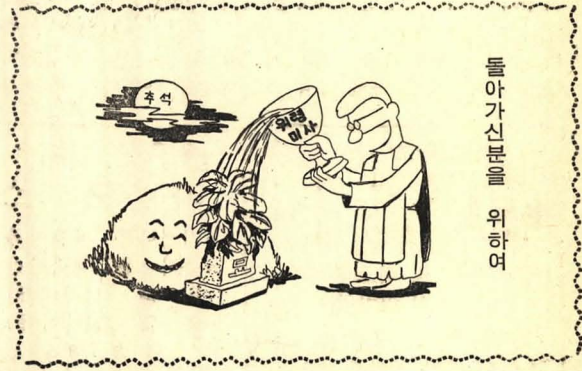
약 속

원수는 흔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를 우화는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버티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염소는 고집마저 보통이 아니라 양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결국 힘이 센 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힘이 동등하면 두 마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의 의미는 실로 크다.

요즈음 한국의 정치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두 김씨의 존보호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정치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마조마하게 느끼고, 그러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또다시 80년대의 봄이 재현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직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멋진 대목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충분히 토론하고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런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까지는 원없이(?) 대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추하게 여긴다. 그것은 어쩌면 과거의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몇 차례의 갈라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산하게 해주었다. 이 대목을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몇 차례의 두 김씨의 대좌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끝내 바라는 사항은 단일화이다. 그것은 어떻게 얻어낸 민주화가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돌아가신분들 위하여

자치교구 설정의 의미

— 김 수환 추기경의 기념미사 강론에서

존경하는 박정일 주교님과 전주교구의 모든 신부님, 그리고 친애하는 전주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전주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감회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주교님들과 내빈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 미사를 봉헌하며, 작게는 전주교구에 크게는 한국교회의 설립과 발전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선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한국인 선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처럼 백의민족의 진취와 자주의 토양 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열이요, 한국교회의 특은(카리스마)인 주체성과 자립의지가 외적으로 울트고, 싹을 내고, 마침내 영광은 것이 바로 반세기전 조유의 방인 자립교구로 설정된 전주교구의 탄생입니다. 당시 경향잡지의 사설대로 치명 복자들에게는 기쁨의 용약이 되고, 조선 땅에 가톨릭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가성직제를 조직하고 활동하던 선열들에게는—그분들이 만일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감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나라 전체가, 일본의 침략아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굴종을 강요당하던 겨레의 암흑기였음을 생각할 때, 이 자립 방인교구의 탄생은, 단지 하나의 방인교구 설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교구는 그 출범부터 어두운 이 땅에 자립자주의 빛을 밝히는 “밝히오리다”의 사명을 부여받고 어느날 자주독립을 기필코 이룩해야 했던 겨레의 미래상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립교구의 설정이란 단지 교구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믿는 모든이를 굳게 하나로 묶고, 밖으로 더욱 힘차게 이를 증거케 하는 교회의 성사적 신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경축은 다만 전주교구만의 기쁨일 수 없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쁨이요, 나아가 “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주의 교회”, 은 세상 모든이의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신앙과 신비에 관한 축제인 것입니다.

로 사 리 오(Rosario) 성월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이다.

로사리오는 묵주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틴어(Rosarium: 장미 꽃다발)에서 유래한다. 또 이를 매피신공(玫瑰神工)이라고도 하는데 매피란 장미과의 낙엽관목으로서 향기나는 매질레의 일종이다. 이는 주로 중국에 많이 있으며 매피라는 말도 중국에서 사용한다.

초세기 이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뜻으로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 대신에 장미꽃을 바치기도 했는데 특히 순교자들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순교자들은 팔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목이 가 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썼다. 그런데 신자들은 거룩하게 몸을 바친 이들이 썼던 그 장미관을 한데 모아 장미꽃 한 송이마다 기도를 한 가지씩 올렸다. 예집트의 사막에 숨어서 기도하던 은수자(隱修者)들은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작은 이삭이나 돌을 엮어 꾸리며 기도를 올렸다. 뿐만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은 시편 150편을 외우기 위해 구슬을 150개를 꿰어 사용했으며, 나중에 주의 기도나 성모송을 할 때에도 사용했다. 이처럼 묵주의 기도는 여러 가지 관습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무엇을 사용하든 다만 영적인 꽃다발을 바친다는 데에는

거의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로사리오 기도는 성모님께서 성 도밍고(1221년) 성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모님이 1846년 La Salette에서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에다 오색 찬란한 꽃으로 만든 관을 두르셨는데 이 꽃들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모후께 바치는 장미꽃을 의미한다. 1858년 루르드에서 발현하셨을 때 묵주를 가지고 오셔서 벨라베타에게 가르쳐 주셨다. 드디어 1883년부터 시작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들 속에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의 기도를 바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1871년에는 성모님께서 Pontmain에 발현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해 주시는 성모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가를 직접 알려 주셨다.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셔서 매일 묵주의 기도 15단을 바칠 것을 6번이나 발현하여 호소하였고 마지막에 자신을 매피의 모후라고 선언하였다.

기도시간이 짧아지고 묵상이 부족한 이 시대에 로사리오 기도는 참으로 필요하다.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더구나 성모성년에 로사리오 기도를 많이 하므로써 성모님의 전구를 구하자.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 축 개 업 *

마 모 스

• 신생아복 • 유아복

• 유아용품 • 유아완구

아 멀 억(메테사)

이 멀 숙(마리아)

83-2585

(코오롱쇼핑 1층)

최 윤 경 미 용 학 원

전 신 미 용 비 만 해 소

피 부 미 용 성 인 병 방 지

날씬한 체격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리시 중앙동 **최 윤 경**(유리안나)

전화 3-2496·2-8653

교 구 소 식

1. 재정심의회 : 13일(화) 오전 10시30분
2. 교구청 직원 소풍관계로 16일(금)은 휴무입니다

천호 피정의 집 개관

천 교구 신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피정의 집 운영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교구 사무처에서 주관키로 하고 오는 10월 12일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많은 활용을 바라며 피정의 집 이용의 모든 연락은 교구청 사목국에서 접수합니다.

1. 개관일 : 1987년 10월 12일부터
2. 연락처 : 교구청 사목국

※ 대관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용자와 교구 사무처의 협의하에 실시하시기 바람.

♣ 잠깐!

□전주교구가 설정된 이래 가장 큰 잔치가 끝났다. 이름하여 「전주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대회」. 얼마나 모일 것인가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회는 잘 끝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을 하늘처럼 말짱하게 끝난 대회였다.

참석자들의 집계보고가 제대로 안된 가운데, 본부 상황실에 알려진 숫자는 10시30분 현재 4만2천여명. 그 뒤로도 계속 수는 불어났으나 자세한 숫자는 알길이 없다. 좌우간, 언론기관의 보도는 5만여명이 운집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운동장의 실무자들은 6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어느 신부님의 표현처럼 이날 행사는 "현대판 기적"이란단다.

□세례식은 장관이었다. 잔치마당 모양으로 들떠 있는 가운데, 1,200여명의 새로운 형제자매가 탄생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는 주교님들의 세례예절에 모두들 호뭇해 하였다.

제 1부 기념미사는 제대로 시간이 지켜졌으나, 제 2부 기념식은 예정된 시간을 많이 넘겼다. 육에 티라고나 할까? 그러나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신자들의 열기에 축하해주러 오신 주교님들은 피로를 잊은 듯이 보였다. 특히, 한국에 부임한 이후 첫나들이를 하신 교황대사 이반 디아스 대주교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진행자들의 초조한 마음을 달래 주었다.

제 3부 기념축제, 짧은 연습시간이라서 행여 어쩔까 하는 염려는 기우에 그쳤다. 농민회가 애 쓴 풍물놀이, 귀여운 국민학생들의 울동과 중·고등학생들의 허슬은 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장기자랑도 마찬가지였다. 노래도 좋았고 국악도 좋았다. 당일 세례받은 최진희(비례사) 자매의 설장고 솜씨는 참으로 일품이었다. 68세의 효자동 할머니는 노익장을 과시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온 가톨릭 연예인들과 반주를 맡은 본 교구의 그레고리오 회원들 수고가 컸다. 가톨릭적(?)으로 사회를 해준 조철남·방일수 형제, 가수 권은경·정재은·김상희·은방울자매, 텔런트 박혜숙 자매, 한국의 톱스타 안성기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날 미사현금의 총액은 2천8백6십9만1천6백4십5원, 그리고 축하금이 2백2십8만7천2백원으로 우려했던 적자는 면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해준 전주 공설운동장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사본과 위원회)

요십이 (740) 김병오



□ 1분명상

충실한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충실한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명동피부과의원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도매상
* 고급 친구류 || 도매상
* 각종 솜 일체 || 도매상
* 커렌지 || 도매상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세심검도체육관

국민학생·중·고·대·일반 검도 초보자들을 위해
전 국가대표 특별지도

검도 6단 관장 김 태 경(빈첸시오)

☎ 72-8 0 0 9

전주시 금암동 1556-1 금암아파트 30m 후방

품질보증·친절봉사·신속배달

부안연탄공장

전화 2-6355

대표 이재익(베네딕도)

※ 부안, 김제, 정읍군 및 기타지역 배달함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 반미사안내: 14일 오후 8시, 1반-장창기(☎3045)
- 1. 본당신부님 은경축: 27일, 신부님을 위한 40일기도 영적예물은 다음주일까지 마감합니다(접수-사무실) 물적예물은 준비된 봉투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 2. 병자봉성체: 15일 오후
- 3. 모임: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움-오늘 오후 2시
상지회: 14일(금) 오후 7시
성모회-16일(금) 어머니미사 후
다미안회-16일(금) 오후
울뜨레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하늘의문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 4. 다음주일은 전교주일입니다
전교를 위한 2차헌금이 실시됩니다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안영
수녀원 76-0961

- 1. 오늘은 친교주간
반장님 회의-오늘 공식미사 후, 수녀원 3층 회의실
- 2. 차주는 선교주간: 꾸리아 회의-18일 오후 2시
- 3. 차주는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 4. 성시간: 15일 저녁미사
- 5. 꾸르실로 울뜨레야: 15일 저녁미사 후
- 6. 10월 형제회: 12일~17일, 각 반별로 실시
- 7. 모니카회 월례회: 15일 오전 10시
- 8. 전신자 테니스대회: 25일, 사무실 접수요망
전북농대 테니스코트, 참가비-5천원
- 9. 교회운영비: 월납제를 꼭 지킵시다
- 10. 금주복사: 윤기환·최장수 차주: 이대용·장유진
- 11. 금주봉헌: 김창선 부부 차주: 양정용 부부
- 12.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pr 차주: 천사의 모후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낙협
수·유 72-1222

- 1. 오늘의 모임: 성화회-공식미사 후, 사목회의실
베드로회-공식미사 후, 2층 교리실
- 2. 금주의 모임: 까리따스회-13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14일 오전 10시
에루살렘 부녀회-16일 오전 11시30분
- 3. 푸른군대 주관 신자 1일피정: 15일 오전 10시
- 4. 금주의 본당청소: 결백하신 어머니pr-17일 오후2시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1. 성서 공부합니다: 금주성서-14일 오후 8시30분
루가 1장 26절~2장 21절, 마태오 1장 1절~25절
- 2. 교리 공부합니다: 왜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는가?
- 3. 신부님 가정방문 일정표: 20일~11월 5일(화·수·목)
20일: 오전-동1·오후-팔5, 21일: 오전-동2·오후-팔5, 22일: 오전-동5·오후-화전, 27일: 오전-동4, 28일: 오전-성덕, 29일: 오전-팔3·오후-동6, 11월3일: 오전-팔1·오후-농원, 4일: 오전-원동·오후-원반월, 5일: 오전-팔2·오후-팔4
- 4. 주일학교 첫영성체: 25일 공식미사 중에
첫교백-24일 3시, 영세식-24일 8시30분
- 5. 예비자교리: 15일 오후 8시30분, 중·고생-토 6시

- 6. 모임: 동령회·안나회·글라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동성회-17일 오후 5시
꾸리아-차주 공식미사후 2시
- 7. 금주 구역미사·모임: 13일 미사-팔3구·모임-동6
14일 나눔잔치-원동, 16일 미사-원동모임-동3
- 8. 청소: 증거자의 모후 수녀님방문: 평화의 모후
- 9. 금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임선홍 ②김정숙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이의준 ②신문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1. 금주모임: 바울로회-공식미사 후(강당)
- 2. 중·고학생미사: 토요일 오후 5시(특전미사)
저녁 8시 미사는 없음
- 3. 주일학교 소풍: 18일(도시락 지참)
장소-전지산
- 4. 송천월보 원고모집: 신앙체험·수필·시 등
(광고모집)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오늘: ①예비자 교리반(10월반) 시작, 오전 9시
②울뜨레야-공식미사 후
- 2. 13일: 자모회(오전 10시), 사목회(오후 8시30분)
- 3. 14·15·16일: ①전진교리 시작(오후 8시30분)
21·22·23일: ②구역모임(숭머리 참조)
- 4. 구역방문: 13일-금암1구, 14일-금암2구
15일-동양아파트, 16일-서신1구
- 5. 17일: 초등부 고백성사(오후 5시)
- 6.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음
- 7. 미사안내: 바다의 별
- 8. 금주 본당청소: 화-하늘의 문
토-증거자의 모후
- 9. 금주전례: 해설-이종상, 독서·기도-오정중·신덕순
봉헌기도-김창현·민복순
차주전례: 해설-이종상, 독서·기도-양승진·홍신우
봉헌기도-이종희·홍숙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홍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다음주일은 전교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성인-500원, 어린이-100원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2. 금주의 모임: 15일 어머니미사 후(제대회)
- 3. 성전신축기금 마련 건의역 판매
1포(200g) 2천원, 완도천주교회 제공
- 4. 미사때 매일미사책과 성가집을 지참하세요
- 5. 하루에 한장씩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됩시다
- 6.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협조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7. 주일학교 행사(체육대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8. 금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기도-김종표·정남현
봉헌-한갑용·김순주
안내-경화중·김진영
차주전례: 해설-박강웅, 독서·기도-이병호·양희순
봉헌-전영균·이순자
안내-이순영·박병택